

OECD의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논의 동향

! 전 영 균*

I. 개요

OECD 회원국의 ICT 발전 동향과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을 통한 ICT 정책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OECD 과학기술산업국(DSTI, 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산하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 Committee on Digital Economy Policy)는 그 예하에 3개의 작업반을 두고 있다.¹⁾ 이 중 통신인프라·서비스정책작업반(WPCISP, Working Party 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s and Services Policy)은 통신인프라 구축, 브로드밴드 접속, 통신 요금, 통신 시장 경쟁 등 통신 정책과 규제 전반에 대한 정책 개발 및 권고안을 작성하는 작업반이다.

통신서비스 결합판매(Bundle Service) 역시 WPCISP이 논의 중인 의제 중 하나이다. 현재 통신서비스 결합판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 및 정보통신 선진국에서 통신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으나, 구성요소가 복잡한 결합판매의 특성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원, (043)531-4183, ygjeon@kisdi.re.kr

1) 2014년부터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는 명칭변경과 조직개편을 통해 CDEP 및 예하 3개 작업반(통신인프라·서비스정책작업반(WPCISP, Working Party 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s and Services Policy), 디지털경제정보보호·프라이버시작업반(WPSPDE, Working Party on Security and Privacy of the Digital Economy), 디지털경제측정분석작업반(WPMADE, Working Party on Measurement and Analysis of the Digital Economy))으로 구성.

상 기존의 방식으로 분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OECD WPCISP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국의 통신서비스 요금 비교에 있어서도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WPCISP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OECD 요금지수(OECD Price Basket)들과는 별도로, 결합판매 분석을 위한 요금지수를 개발하고 결합상품에 대한 요금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 적용을 다각도로 시도하고 있다. WPCISP의 이러한 행보는 결합판매 상품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설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요금 비교, 통신 정책 및 규제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결합판매 요금지수와 이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인 헤도닉가격 방법론을 중심으로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Ⅱ.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요금지수 논의

2014년 6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 WPCISP 제51차 정례회의에서는 통신서비스 결합판매에 대한 이슈가 논의 되었다. 동 논의에서 OECD 사무국은 <표 1>의 기존 OECD 통신 요금지수(Price Basket)들과는 별도로, 결합판매 분석을 위한 <표 2>의 결합판매 요금지수(Bundles Basket)를 새롭게 제안하였다.

결합판매 요금지수는 유선전화, 유선인터넷, 유료TV, 모바일 등 결합판매에 사용되는 4개 종류의 상품을 기본서비스(Basic Service), 프리미엄(Advanced Service)로 구분하여 통신서비스 요금을 비교하는 도구이다. OECD가 결합판매 요금지수를 제시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결합판매상품을 요금지수에 반영하고 표준화된 기준에서 각국의 소비자후생을 측정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책입안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이 OECD WPCISP의 목표이다.

<표 1> 기존 OECD 요금지수 종류 및 구성

요금지수	분류기준 수	상세 구성		
유선전화 요금지수	6개	영업용	100통화, 260통화	
		가정용	20통화, 60통화, 140통화, 420통화	
유선브로드밴드 요금지수	10개		저용량	고용량
		>0.25 Mbit/s	2GB, 10시간	6GB, 30시간
		>2.5 Mbit/s	6GB, 15시간	18GB, 45시간
		>15 Mbit/s	11GB, 20시간	33GB, 60시간
		>30 Mbit/s	14GB, 25시간	42GB, 75시간
		>45 Mbit/s	178GB, 30시간	54GB, 90시간
무선브로드밴드 요금지수	15개	컴퓨터사용 (데이터)	태블릿PC 사용 (데이터)	휴대기기 사용 (데이터+음성/SMS바스켓)
		500MB	250MB	100MB+30통화 바스켓
		1GB	500MB	500MB+100통화 바스켓
		2GB	1GB	1GB+300통화 바스켓
		5GB	2GB	2GB+900통화 바스켓
		10GB	5GB	2GB+100통화 바스켓

자료: OECD(2011), OECD(2013)

<표 2> OECD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요금지수 구성(안)

	유선전화	유선인터넷	유료-TV	모바일 서비스
기본	사용 가능	다운로드 속도 최소 10Mbps 및 데이터 제공량 25GB	유료 TV 기본 채널 제공	기존 OECD 요금지수 (30 통화 기준)
프리미엄	국내 통화 무료 (또는 기존 OECD 요금지수 420 통화 기준)	다운로드 속도 최소 30 Mbps 및 데이터 제공량 200GB	최소 40개 채널 이상(스포츠, 프리미엄 영화 채널 콘텐츠 포함)	기존 OECD 요금지수 (300 통화 및 1GB 데이터 기준)

WPCISP는 <표 2>의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요금지수(안)을 바탕으로 OECD의 12개 국가(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의 38개 사업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결합판매 요금을 산출하고 비교할 예정이다. 사무국의 예비연구결과, 측정된 3개 품목 결합판매(Triple-Play - 유선전화, 유선인터넷, 유료-TV)의 요금은 기본 서비스가 평균 53달러, 프리미엄 서비스는 평균 106달러로 산출되었다. 그리고 4개 품목 결합판매(Quadruple-Play - 유선전화, 유선인터넷, 유료-TV, 모바일)의 경우 기본 서비스의 요금 수준은 평균 65달러, 프리미엄 서비스는 평균 150달러로 산출되었다. 결합판매 요금지수의 최종 버전과 이를 활용한 국가별 요금 상세 비교는 OECD WPCISP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2015년 6월말에 발간될 ‘디지털경제 아웃룩 2015’에 포함될 예정이다.

Ⅲ. 헤도닉가격 모형 논의

결합판매 요금지수와 더불어 헤도닉가격 모형(Hedonic Pricing Model)은 현재 WPCISP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제 중 하나이다. 또한 헤도닉가격 모형은 통신서비스 결합판매의 영향력과 통신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질적 요소 측정을 위한 기존의 방법론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박은태(2011)는 헤도닉가격 모형에 대해서 “환경재의 변화에 따른 환경편익이나 환경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은 해당 환경재의 가치를 시장을 통해 평가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사용가치의 시장가치평가, 사용가치의 비시장가치평가, 그리고 비사용가치의 비시장가치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헤도닉 가격 모형은 환경의 이용가치를 암묵가격에 의해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사용가치의 비시장가치평가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정의하고 있다.²⁾ 다시 말해, 헤도닉가격 모형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질적인 수준이나 상품 및 서비스의 고유한 특징을 고려함으로써 가격 결정행위를 측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볼 수 있다. OECD 사

2) 박은태(편저)(2011)

미국은 헤도닉가격 모형을 통해 브로드밴드 가격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분석함으로써 결합판매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ECD는 이러한 헤도닉가격 모형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2014년 9월 12일 워싱턴 D.C.에서 “Hedonic Price Analysis of Communications Service”라는 제목으로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였다.³⁾ 이 회의에서 사무국은 헤도닉가격 모형을 활용하여 월평균 요금 증가율(Monthly Price in logs)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다운로드 속도, 기본 제공 데이터양, 기술변수, 약정기간, 결합판매 상품 구성, 기업 변수 등 다양한 독립변수를 포함하여 통신요금을 분석한 결과, 다운로드 속도, 기본 제공 데이터양, 약정기간, 결합상품 종류 및 수 등 대부분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헤도닉가격 모형을 활용하여 결합판매를 분석하면 기존에 고려하지 못했던 질적인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여 포괄적인 통신요금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OECD 사무국은 헤도닉가격 모형의 통신요금 분석 활용을 위한 2가지 이슈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질적 신뢰도이다. 보고서에서 활용한 텔리젠(Teligen/Strategy Analytics)의 데이터는 각 결합상품 사용자 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광고 요금에 대한 불명확한 측정으로 인한 광고 요금과 실질 요금의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가정용과 기업용의 요금제를 별로 분리하기 쉽지 않으며, 불명확한 TV/비디오 서비스 측정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 참석자들은 해결책으로 TV/비디오 서비스의 추가 변수, 예를 들어 채널 수, 채널 품질, VOD에 대한 인식 및 가용성에 대하여 각 국의 시장 경쟁 측정을 제안하였다. 둘째는 헤도닉가격 모형에 대한 활용법이다. 헤도닉가격 모형을 활용한 계량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변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이다. 변수 활용법에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 특성가격지수(characteristics price index), 풀드 패널 데이터(pooled panel data)가 있는데 이 중 더미변수를 활용

3) OECD(2014)

할 경우 관련 국가-사업자-요금제-요금제-기간 등의 더미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석자들 역시, 더미변수가 모형의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운드테이블 회의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헤도닉가격 모형의 활용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더 나아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결합판매 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부문에 헤도닉가격 모형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헤도닉가격 모형을 국가 간 비교에 활용하는 것은 방법론으로써의 가치와는 별도로 국가별 차이, 데이터 확보방안 등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총평하였다.

라운드테이블의 참석자들의 의견을 상세히 보면 첫째, 약정기간과 관련하여 할인가격(Promotional prices)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할인 가격 적용과 관련된 약정기간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약정기간에 대한 변수의 결과 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다운로드 속도와 기술 변수(광통신망 혹은 케이블 사용 유무)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광통신망이 케이블에 비하여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속도와 기술변수가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셋째, 데이터 선정에 있어 다양한 요금제를 갖고 있는 몇몇 통신사업자들이 데이터 샘플에서 지나치게 대표성을 부여 받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이라는 조언이 있었다. 넷째, TV 및 비디오 콘텐츠는 다른 것과 다르게 상당히 차별화된 상품으로서,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채널 수, 채널 품질, 채널에 대한 인기 및 VOD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OECD 회원국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콘텐츠 요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IV. 결 어

OECD WPCISP의 2014년에 새롭게 선출된 작업반 의장인 Tracy Weisler(미국)는 ‘CISP 2.0’이라는 슬로건 하에 작업반의 역량 강화 및 역할 확대 그리고 향후 작업(연

구)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모색해왔다.⁴⁾ 그 결과, WPCISP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프라 현황 비교, 요금 비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신 시장의 동향을 반영한 논의와 통신서비스의 정책과 규제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의 결합판매 요금지수와 헤도닉가격 모형 논의는 WPCISP의 새로운 모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헤도닉가격 모형의 경우 작업반 의장이 2014년 12월 정례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헤도닉가격 모형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의미 있는(significant) 방법론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히는 등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상태이다. 따라서 헤도닉가격 모형은 향후 2~3년간 WPCISP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WPCISP이 헤도닉가격 모형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결합상품가격 국제비교론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국가마다 상이한 변수(인터넷 속도, 약정기간, 기초 형성 가격대, 다양한 요금제 등)를 통일된 기준으로 정의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를 활용하여 결합상품에 대한 각 국의 요금 및 질적 변수에 대한 비교, 통신요금의 포괄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결합판매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통신요금 비교가 아닌, 경쟁의 유무, 시장 획정, 방송 및 통신 융합, 유무선 통합 등 정책 및 규제 이슈 개발 및 이에 대한 평가 및 분석에 있다. 따라서 OECD WPCISP 역시 헤도닉가격 모형을 단순히 요금 비교에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석의 효용성을 극대화하여 향후 통신 정책 및 규제 이슈의 개발과 이에 대한 평가 및 분석 도구로 활용할 전망이다.

4) 2013년까지 WPCISP의 의장은 Vince Affleck(영국)이며, 2014년부터 Tracy Weisler가 새롭게 의장으로 선출

참고문헌

- OECD (2014). Summary, “Hedonic Price Analysis of Communications Services”,
OECD Roundtable, Washington D.C., 2014. 9. 12.
- _____ (2013).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13*,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comms_outlook-2013-en
- _____ (2011).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11*,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comms_outlook-2011-en
- 박은태(편저) (2011), 『경제학사전』, 경연사.